| 현불 논단 |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간절히 오늘을 살라

느슨해진 우리의 방역 습관틈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 시작

도쿄올림픽 출전한 17세 신유빈양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 큰 울림
우리 모습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스스로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녀라"
주변 탓만해선 상황 나아지지 않아
오늘 하루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레 새로운 델타변이라는 것이 등장하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장마를 보내고 한창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더운 날씨를 피해 강이나 산 등으로 외부활동이 많아질 시기에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이어 비수도권도 이제 거리두기 3단계를 시작하고, 가야산 깊은 산골의 해인사에도 다시금 방역근무를 시작하며 작년 이맘때 느꼈던 긴장감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2년 가깝게 지속된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과 같이 익숙해지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관념이 생겨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다시금 찾아온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또한 다시금 지나갈 것이고 그 안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다. 잠시 지쳐있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어디를 가도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며, 어디를 들어가도 누구 한 명 불평 없이 출입기록을 작성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모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견디고 지나보내려 하는지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20도쿄올림픽이 개최됐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자국민들조차 반대하던 올림픽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강행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오랜 시간 준비했던 올림픽이었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올림픽에 참여하여 열띤 시합을 펼치고 있다. 유례없는 무관중 경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올림픽을 했어야 하나라는 의구심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지난 시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보다 큰 감동과 환희를 전해 받는다.

특히 탁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17세의 어린 나이로 출전한 신유빈 선수의 공항패션이 화제였다. 마치 우주라도 떠나듯이 온 몸을 하얀 방역복과 마스크, 헬멧까지 착용하며 일본으로 떠나던 그 어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올림픽 출전이었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본으로 가서 도전하겠다는 그 어린 선수의 한 마디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 수많은 비난과 반대에도 결국 열린 올림픽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어디선가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은 부정적인 상황을 어느 샌가 잊게 만들고, 그 모습에 동화되어 힘차게 응원하고 그 힘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 일상의 설렘이 되어준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산다. 그 오늘이 주변 상황에 의해 어려워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으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법구경〉에 나온 가르침과 같이, 주변의 탓만 하고 현실을 부정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주인공의 삶을 살며 한 걸음씩 우리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社 說

'화쟁연구소' 설립에 거는 기대

원효 스님의 주요 사상인 '화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영산대에 설립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영산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화쟁 인문학' 구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화쟁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영산대 화쟁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는 원효 전문가인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올해 정년을 맞은 박 교수는 영산대로 자리를 옮겨 연구를 총괄 진행한다. 박 교수는 지난 2018년 울산대에 '원효학토대연구소'를 설립하고 〈원효 전서〉를 발행하는 등 원효 스님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화쟁 인문학'의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차이들의 배타적 분쟁'을 해소·화해시키는 한국적 자생 인문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학술대회로 알린다. 학술대회는 불교와 동·서양철학에서 화쟁 사상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돼 기대를 모은다.

연구소는 향후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창설, 〈원효 전서〉 영역(英譯) 사업, 화쟁 인문학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원효 스님 관련 연구소는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 분황사의 원효학연구원 등 여럿 있어왔다. 하지만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을 전문 연구하는 기관은 영산대 화쟁학연구소가 처음이다.

원효 스님의 '화쟁'은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현대사회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담론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불교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상이라는 것이다. 화쟁연구소가 이 시대의 화해를 주도하는 담론의 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불교영화 중흥의 장 만들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오세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우리나라 현대 영화 중흥기에는 불교영화가 있었다. 최근 불교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날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외 불교영화를 망라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영화제가 준비돼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대한극장에서 여는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에는 15개국 영화 62편이 초청돼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 출품영화는 총 5개 섹션별로 나뉘어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부처님 일대기와 큰 스님의 일화를 다룬 '연꽃', 자유와 지혜를 찾아 구도의 길을 걷는 스님과 일반인들의 이야기인 '라일락', 일상에서의 연대와 박애 등을 담은 '동백', 불교와 과학 등 최신 트렌드를 담은 '수선화',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미얀마 특별전' 등이다.

지금까지 불교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와 같은 대형국제영화제에서의 초청작 수준으로 대중에게 소개됐다. 유명 영화들 사이에서 일종의 맛보기 형식으로 소개돼 왔다. 이번 국제불교영화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불교인들의 문화축제이자 불교영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보다 양질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출품하게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21세기는 문화 창달의 시대다. 한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불교영화 중흥의 장이 될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에 불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모든 존재는 행복 원한다

요즈음 연일 학교 폭력이 큰 뉴스거리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의 사진을 보면서 온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연민이 밀려옵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군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은 말리카왕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그대는 누가 그대보다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생각은 일치했지만, 어딘가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세나디왕과 왕비는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말라카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붓다는 왕과 왕비의 결론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찾을 수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자기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불살생(不殺生),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불살생이란 생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하고, 폭언을 퍼붓는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에 몸담고 있는 것은 모두 자기의 분신과 같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나의 마음도 편하지 않기에 결국은 자신을 헤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만큼 자신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